



■ 연구원 주요일정

- 06월 12일(月) : 주간회의
- 06월 14일(水) : 기관지 발간 편집회의

■ 연구원 소식

○ 법인업무보고

- 날 짜 : 2017.06.08(木)
- 내 용 : 6월 법인 월례업무보고가 6월 7일에 있었습니다. 5월에 있었던 사업진행과 후원회원 현황, 후원금 및 운영비 지출현황과 6월 예정 사업을 보고하였습니다.

○ 新, 舊 운영위원 간담회

- 날 짜 : 2017.06.08(木) / 장 소 : 초남이 성지
- 내 용 :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의 新, 舊 운영위원이 초남이 성지에서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예정된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지역종교문화답사 안내 <7월 1일(土)>

: 우리연구원 김천식 전임연구원이 안내하는 종교문화답사가 **“7월 1일(土)”** 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정은 오전 9시 한벽루에서 집결하여 “아름다운 순례길”을 따라 완주군 화심까지 약 20km 도보 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희망자는 도시락을 지참하신 후 7월 1일 9시까지 한벽루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문의는 연구원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 연구원 신규 회원 가입

: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권안석”**, **“오광수”**님, 경기도 용인에 살고 계시는 **“오충식”**, **“강미라”** 님, 전주에 살고 계시는 **“하태우”** 님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사업을 통해 더욱 자주 모시겠습니다.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 회원 동정

○ 이종철 회원 저서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 우리 연구원 이종철 회원(전북대 박물관 학예연구사)이 쓴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전개와 취락 체계”**가 2017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인문학 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석·박사 학위 논문을 비롯한 연구에서도 송국리를 중심으로 한 청동기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온 이종철 회원은 이 책을 통해 ‘송국리형 문화’의 전개 과정을 집대성해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夢李白(第2首)

이백을 꿈꾸고(둘째 수)

浮雲終日行(부운종일행)	뜨른 구름은 온 종일 오락가락해도
遊子久不至(유자구부지)	그대는 나그네로 영 찾아오질 않다가,
三夜頻夢君(삼야빈몽군)	사흘 밤을 연달아 그대가 꿈에 들어
情親見君意(정친견군의)	정다운 그대 마음 옛보이나니.
告歸常局促(고귀상국축)	초조한 모습에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苦道來不易(고도래불이)	가는 길이 너무도 힘들다며 하소연하고,
江湖多風波(강호다풍파)	강호에는 풍파가 많아
舟楫恐失墜(주즙공실추)	배를 타면 뒤집힐까 두려워하며,
出門搔白首(출문소백수)	허연 머리 긁적이며 문밖으로 나오니
若負平生志(약부평생지)	평생의 뜻 어그러진 때문인 듯.
冠蓋滿京華(관개만경화)	서울에는 고관대작 넘쳐나는데
斯人獨顛顛(사인독초취)	이 사람은 홀로 초취한 물골이구려.
孰云網恢恢(숙운망회회)	하늘이 알아준다고 뉘 말했던가?
將老身反累(장로신반루)	늘그막에 도리어 오라에 묶였으니,
千秋萬歲名(천추만세명)	천추만세 전해지는 명성도
寂寞身後事(적막신후사)	죽은 뒤의 쓸쓸한 일이라네.

■ 작자소개

- 두보(杜甫, 712~770).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서 시성이라 불렸던 성당시대(盛唐時代)의 시인. 널리 인간의 심리, 자연의 사실 가운데 그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찾아내어 시를 지었다. 장편의 고체시(古體詩)는 주로 사회성을 발휘하였으므로 시로 표현된 역사라는 뜻으로 시사(詩史)라 불린다. 주요 작품에는 《북정(北征)》, 《추흥(秋興)》 등이 있다.

■ 감 상

- 741년 집으로 돌아온 두보는 양씨(楊氏)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양씨는 두보의 평생 배필이었다. 뒷날 두보는 궁핍 속에 떠돌아다니면서도 언제나 아내를 동반하였다. 잠시라도 떨어져있게 되면, 아내를 그리는 마음을 틈틈이 시에 담았다.

744년 두보는 평소 사모하던 천재 시인 이백을 마침내 만나게 된다. 이백은 궁정에서 추방되어 산동성으로 향하던 걸음이었는데, 여정에서 잠시 낙양에 들른 것이다. 이들은 단번에 의기투합하여, 오늘날 하남성(河南省)이 자리 잡은 양(梁)과 송(宋)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시인 고적(高適)과 잠참(岑參)을 만나,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우정을 다졌다. 이들과 헤어진 뒤, 두보는 강남(江南)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백과의 여행이 얼마나 감명 깊었는지, 두보는 두고두고 이백의 꿈을 꾸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백이 역모에 연루되어 귀양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근심 속에 연 사흘 동안 이백을 꿈꾸기까지 하였다. 이때 지은 시가 「몽이백(夢李白)」 두 수이다.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는 아테네이고 아테네의 중심에는 신다그마 광장과 오모니아 광장 그리고 모나스티라키 광장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신다그마 광장이 중심부 역할을 한다. 이 광장 주변에는 국회의사당과 정부 청사를 비롯하여 외국 공관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명 호텔과 여행사들이 들어서 있으며, 공항 가는 버스 정류장이 이곳에 있어서 외국인들로 항상 붐빈다. 신다그마 광장 주변 골목에는 아테네의 전통 음식을 자랑하는 레스토랑이 구미당기는 냄새를 풍기고 대로는 명품거리가 흥미를 손짓한다. 또한 만남의 장소와 정치적 집회의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테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국기가 나부끼는 국회의사당 건물 바로 앞 하단 벽면에 페리클레스의 묘비명과 무명용사들을 기리는 비문 부조가 있다. 이곳에서 일요일에 근위병 교대식이 있는데, 군인들의 구두 모양이 군화라기보다는 양증맞아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벽에 대한민국이 새겨져 있다. 대한민국을 'KOPEA'라 되어 있는데, 스펠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 KOREA를 그리스어로 표기한 것이다.

최근에는 정치적 부패로 인한 경제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기원전부터 쌓아온 문화는 오늘도 푸른 하늘에 빛나는 파르테논 신전처럼 그 역사적 고고함의 자태를 간직하고 있다.

■ 나의 문화유산 연재기

점심시간은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나는 주로 점심시간에 사무실 근처를 어슬렁거리는데 주변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많아 전시를 보기도 하고, 명소나 유적지에 들르기도 한다.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 차로 5분 거리에 '보도각 백불'이라 불리는 마애불이 있어 함께 일하는 연구원들과 잠시 다녀왔다. 정식 문화재 등록 명칭은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보물 제1820호)'인데, 전면에 하얀 호분이 칠해져 있어 '백의관음'이라고도 불린다.



<멀리서 바라본 보도각 백불>

홍제천 계곡 옥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마애불은 고려시대 조성되었다. 커다란 바위를 등글게 파고 5m 가량으로 조성하였는데, 마치 감실 안에 모셔진 것과 같은 모습이다. 길가에서도 흰색이 그 모습이 보이는데, 흐르는 물 옆 암반 위 보도각에 모셔져 있는 모습이 자못 이채롭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보도각 백불>

이는 현재의 우리만이 가지는 느낌이 아닌지, 일제강점기 한국을 방문한 영국의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도 그 모습을 보고 작품으로 남겨놓았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29세 때인 1915년 『뉴 이스트 프레스』의 편집인인 제부 J. W. 로버트슨 스콧과 여동생 엘스펏 K. 로버트슨 스콧이 살고 있는 일본에 잠시 다니러 왔다가 동양의 신비로운 색채에 매료되어 근 10년간 머무르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다.



<이토 신수이, <엘리자베스 키스의 초상화>, 1922>

(엘리자베스 키스·엘스펏 K. 로버트슨 스콧,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책과 함께, 2006)

일본에서 머물던 엘리자베스 키스는 1919년 여동생과 함께 한국에 처음 입국하였고 일본과는 또 다른 한국의 매력에 이끌려 이후로도 몇 차례 더 입국해 서울, 평양, 함흥, 원산, 금강산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대개 목판화로 표현된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은 풍경만이 단독으로 묘사된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보도각 백불'로 한국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키스, <백불>, 1925>

(엘리자베스 키스·엘스펏 K. 로버트슨 스콧,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책과 함께, 2006)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여기에서 기도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전하며, 고종의 어머니인 흥선대원군의 부인 민씨가 여기에서 고종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결혼 4년 차, 아직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오기를 여기서 빌고 또 빌었다.

● 우리 연구원 협약기관이며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유두희 관장을 비롯하여 박선주, 김다혜 팀장 등 연구원 회원들이 적극 추천하는 미숫가루 특판행사를 안내드립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 **중량 : 1Kg / 가격 : 10,000원** -

고소한 내고향 웰빙 미숫가루

입맛이 없거나 거르기 쉬운 식사를 든든하고 간편하게
뛰어난 소화 흡수와 영양공급에 도움
여름철 열음을 띄워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법

-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고
- 수험생, 청소년, 어린이, 임산부 영양 간식 및 어르신 영양식으로 최고
- 진하고 고소한 맛 - 미숫가루 3큰술, 우유 200ml, 꿀 또는 올리고당 1큰술
- 단백질 맛 - 우유 대신 물 200ml를 넣어주세요
- 보관법 -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18 ~ 22℃)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재료

- 정읍지역에서 생산된 1등급 곡식만을 엄선하여 제조
(보리74%, 찰쌀7%, 현미찰쌀7%, 메주콩6%, 약콩6%)
- 칼로리 358kcal(100g) 무기질,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며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

무방부제, 무색소, 무설탕 곡류이외에 다른 화학 성분 무(無)사용
무료 택배 배송 5kg이상 주문 시 무료 택배 배송

무방부제
무색소
무과당

웰빙 미숫가루 판매 수익금은 노인복지사업으로 쓰여집니다.

- 중량 및 가격 1kg 10,000 원
- 주문 전화 063) 571-9051 / FAX 063)571-8051
- 주문 방법 전화 및 방문 주문 (5개 이상 무료 배송)
- 계좌 번호 농협 351-0744-7064-13 성공회정읍교회

제조원 : 농업회사법인 콩사랑(영업허가번호 제12-14호) 전북 정읍시 칠보면 축현리 축촌길 92-18 ☎063-538-1900
 (인생공회유지재단)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